

## ‘기계의 사회학’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

박주용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현대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80년 남짓의 시간동안 나온 내로라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도 인간 고수와 차이가 워낙 현격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비한” 놀이로 경외시되던 바둑에서 인간이 알파고에 완패한지 벌써 일년이 되어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 기계지능(인공지능) 연구의 최전선이 포커와 바둑이었음은 잘 알려져있었지만 막상 그 가운데 하나인 바둑이 정복된 순간, 바둑의 신비로움을 신봉하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다. 패배감과 불안감이 주는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으로선, 블러핑이라는 심리적 속임수가 가미된 포커보다는 조금 더 순수한 계산력을 요하는 바둑에서 컴퓨터가 먼저 인간을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위안시켜 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 이공계 대학은, 이 글이 빛을 보기 전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인간에게 백전백승인 ‘오메가포커’가 등장하여 알파고와 함께 인간 지능의 자존심을 앞뒤에서 꾀꾀 포위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계지능 얘기로만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최첨단’ 컴퓨터가 지금의 스마트폰보다도 수백, 수천만배 느리던 시절에도 정해진 규칙 아래 시행되는 놀이따위에서 인간이 컴퓨터에게 따라잡히는 것은 필연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기계에게 지능이 있는가?’ ‘기계지능의 한계는 어디인가?’ 하는 깊은 질문들을 이미 묻기 시작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럴듯한 답으로서 제일 잘 알려진 것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과학자 앨런 튜링(Alan Turing)이 제시하였는데, 바로 ‘궁극적인 기계지능이란 인간과 구별이 가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신성시하던 바둑에서 싱겁게 따라잡힘으로써 인간 특유의 낭만적 사고가 큰 상처를 입은 지금의 우리에게, 기계지능이 우리를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그 궁극적인 성능을 논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구식으로 느껴질 따름이다. 지금의 우리는, 기계지능이 우리를 따라하느냐 마느냐의 수준을 넘어 인간이 얼마나 그로 인해 변해버리게 될지 물어야 할 것 같다.

우리에게 일어날 변화에는 많은 측면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인간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짧게 물어보고자 한다. 사회학은 철저히 함께 살아가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두고 그들의 상호 작용과 집단적인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생물의 사회성을 연구할 때도, 인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간 중심적 관점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 동물은 사람보다 더 평화로운가, 더 호전적인가?”, “이 동물에게도 평생 짝의 개념이 있는가? 그렇다면 일부일처제인가, 일부다처제인가?”, “수컷과 암컷은 얼마나 평등한가?”의 질문들을 날릴 때도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우리 자신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들의 행동은 인간과 비교하여서 의미있을 때만 우리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러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는 물리적인 조건에 공공 묶여있다는 동물로서의 공통점조차 없는 기계지능을 앞에 두고서 우리는 인간과 기계지능의 사회성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대해 알아보려 하기는커녕, 인간의 기본속성인 사회성이라는 것이 기계지능에게 과연 있거나 한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것이 아마 아직 ‘기계의 사회학’이라는 학문적 유행어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최소한 계산력에 있어서는 기계에게 완전히 추월당한 인간 사회가 매우 큰 변혁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곳곳에서 뛰어난 기계지능의 혜택을(보기에 따라서는 지배를) 받게 된 인간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될 것인가? 남녀는 더욱 평등해질 것인가? 극한으로 대립하는 좌우의 정치적 난맥상은 해소될 것인가? 세계는 더욱 더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인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전진하는 기관차처럼 발전하고 있는 기계지능은 우리에게도 보조를 맞추어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내놓으라고 보채고 있다. 물론 손을 놓고 있어도 충분히 발달된 기계지능이 등장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보다 더 좋은 답을 더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피조물도 그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다(‘모든 면에서’ 말이다. 이미 정복된 바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약간은 기분 좋은 낙관적인 믿음을 갖고 따져본다면 아무리 기계지능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야기하고 인간이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기계지능을 잘 이해하고 사용하여 더 좋은 사회를 상상하고 실현해가려는 인간에게는 더 많은 힘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